

자치경장

서울시, '공원사진사' 모집

서울의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의 주요 풍경과 사계절의 변화 모습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재능기부 활동가인 '공원사진사'를 모집·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2월 8일부터 26일까지며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고 공원에서 월 1회 이상 촬영 활동과 정기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라매공원, 서울숲, 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천호공원, 율연공원, 응봉공원에서 활동을 원하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낙산공원, 중랑캠핑 등에서 활동을 원하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 사랑 나눔 헌혈운동 실시

경기 이천시는 2018년 상반기 사랑 나눔 헌혈운동을 오는 20일과 22일 이틀간 실시한다. 시는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동절기 혈액 난 극복과 혈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랑 나눔 헌혈운동을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방지되거나 분실될 수 있는 헌혈증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헌혈증 예치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증을 지원하여 혈액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명시 식품제조가공업협회가 다문화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광명시청 제공

광명 식품제조협회, 명절 선물 전달

경기도 광명시 식품제조가공업협회(회장 조한제)가 지난 6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다문화가정 후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제조가공업협회 영일식품(대표 조한제)을 포함한 1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후원 물품은 협회 회원들의 자체 생산품인 갈국수, 키도산 물비누, 빵, 쌀, 라면 등 생필품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62가구의 다문화가정에 지원했다.

서울시 "연방제 자치경찰 도입해야"

6일 모델 운영 결과 보고회, 범죄 수사권 부여 방안 제안 "지자체와의 치안 시너지" 경찰 "수사, 국가사무 바람직"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켰습니까. 선거 때 중립 지켰습니까. 경찰권이 지방으로 오면 권력의 안전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 운영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연방제 수준의 서울시 자치경찰제 방안을 지지했다. 박 시장은 "40%만 지방경찰하고 나머지는 경찰 그대로 하겠다는 경찰청의 이원화안은 국가 이기주의"라며 "기존 경찰권은 모두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 조직과 인력을 전국 시도 산하로 이전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

시 자치경찰제 모델을 이날 발표했다. 한세대학교 신현기 교수(경찰행정학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과 22명의 '자치경찰시민회의'가 4개월에 걸쳐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담당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맡아 경찰 업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안)'에서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는 중앙정부에서 시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시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

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 자치경찰청장과 자치경찰서장을 임명한다. 예산은 현 국가경찰의 재정을 차인 특별교부금(가칭)으로 변경해 독립적인 차인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논란이 되는 수사권의 경우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국가경찰은 정보·대공·외사·광역적 수사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무만 담당한다. 반면 지난해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이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가지며 자치경찰은 생활 관련 치안과 교통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기존 복지·안전 정책과 결합한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교수는 "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80%에 달한다"며 "지자체와 시너지를 낸다면 훨씬 더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분권 수준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는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 차이점

Table with 3 columns: 구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 Rows include 국가경찰과의 관계, 사무, 조직.



자료: 서울시

김수진 기자 neunga@

포천시, 인구정책협의회 실시

저출산 극복 대책 논의 나서

경기도 포천시가 지난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8년 제1회 인구정책 협의회를 실시했다.

포천시는 저출산 및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 현상으로 지난 2008년 이래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다. 시는 정부 및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으나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포천시 인구정책 협의회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했으며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

논의된 안건 가운데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주기별로 정리해 책자 및 e-book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오프라인에서 각 시기에 맞는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집약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



포천시인구정책협의회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해소를 위해 논의 중이다. 포천시청 제공

로 기업과 다자녀 가정을 결연해 기업의 후원금으로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적은 금액으로 사회공헌의 기회와 함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토의가 있었다. 시에서는 부서 간 협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협의회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했으며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

김정식 총무국장은 "인구는 한두 가지의 사업으로 늘지 않으니 각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나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닌 시 인구를 늘릴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시는 인구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일자리,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고성철 기자 imnews656@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단지 만든다

인천경제청 출범 15년 청사진 내바 송도국제도시 4·5·7·11공구 연계

인천경제청은 지난 6일 인천시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라는 비전 아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과제 발표회를 열었다.

인천경제청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존의 송도국제도시 4·5·7공구에 이어 새로 조성 중인 11공구까지 연계해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지스 등 입주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올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규모가 56만㎡(바이오리액터 용량 기준)를 넘어사게 된다. 단일도시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생산시설이다. 인천경제청은 바이오·헬스케어 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해 이날 5대 목표와 2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4차 산업 선도기지, 글로벌 교육도시, 문화러져 허브, 스마트시티 조성을 제시했다. 20개 추진과제에는 송도·청라·영종에 120개 글로벌 기업 추가 유치, 국제기구 15개에서 50개로 확대, 외국인 전담진료소와 법률·세무전담 창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영종·청라 제3연륙교, 영종·강화 연도교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사통팔달'의 입체적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은 발전자문위원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세부실행계획을 세우고 올해 10월 15일 개칭 15주년 기념일에 맞춰 '목표와 과제'를 확정·선포할 계획이다.

인천시,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도로 주차 허용

인천광역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대상 지역 시장은 중구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신흥시장, 동인천청과시장, 동구 송현시장, 현대시장, 동부현대시장, 남구 신기시장,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용남시장, 학익시장, 제물포시장, 공단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송도역전시장이다.

더불어 남동구 모래내시장, 간석시장, 만수시장, 농산물시장, 부평구 부평재래시장, 서구 가좌시장, 신현시장, 거북시장, 강남시장 등 25개소이다.

시는 설 전·후 도로면 주차허용지역에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남양주썰,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나선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서장 광영진)가 시민의 평온한 설명절을 위해 18일까지 '설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한다.

이에 지난 5일 오전 9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절 특별치안활동'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남양주경찰서 제공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금융기관과 편의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소, 주택가 집입철도 우려되는 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장소 중심으로 범죄 예방지단을 통해 방범인력과 시설을 보완하도록 시설주와 협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찰과 형사가 함께 범죄 취약지역에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지난 5일 남양주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절 특별치안활동'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시민경찰대·생활안전협의회·이장협의회 등 지역사회와도 합동순찰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휴기간 증가하는 가정폭력·과잉학대 사건은 전담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조치와 보호시설 연계 등 사후관리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성철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Ocean Resor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resort building and a hot air balloon. Text includes '2016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賞', '다도해의 보물선 - 여수 디오션리조트', and contact information.

대/표/번/호 1588-0377
전남 여수시 소호로 295(소호동)
theoceanresort.co.kr

다도해의 보물선이라 불리는 여수 디오션리조트는 남해의 푸른 바다를 향하는 특급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비롯해 골프장, 워터파크, 스파&사우나와 컨벤션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의 고객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명품 해양리조트입니다.

